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 2차사업의 1차 워크숍 수행

-김계환 부연구위원 외(국제산업협력실)

I. 출장개요

○ 참가자 (총 15명, 산업연구원 9명, 외부전문가 6명):

분야	이름	소속	직위	출장기간	
총괄 PM	김도훈	KIET	선임연구위원	3/12~3/24	
산업단지	이현주	국토도시연구원	연구위원	"	외부전문가
	유천용	MYE&C	대표	"	외부용역
수출진흥	김학기	KIET	연구위원	"	
지역혁신시 스템	이두희	KIET	부연구위원	"	
외국인투자	주동주	KIET	연구위원	"	
인력개발	박태준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외부전문가
	윤여인	직업능력개발원		"	외부전문가
IR	이임자	KIET	연구위원	"	
	정만태	KIET	연구위원	"	
	김부홍	섬유산업연합회	차장	3/12~3/17	외부전문가
	윤영석	한국건설기계산업협 회	전략기획팀 팀장	3/12~3/24	외부전문가
전자산업 구조조정	조창현	KIET	연구위원	"	
	주대영	KIET	연구위원	"	
	김계환	KIET	부연구위원	"	

○ **출장국가:** 알제리 (알제, 안나바, 오랑, 세티프, 콘스탄틴, 베자이아)

○ **출장목적:** 알제리 산업정책 자문 2차사업의 1차 워크숍 수행. 알제리의 주요 도시인 안나바와 오랑에 시범적 산업단지 조성과 알제리 섬유 및 건설기계산업 분야의 IR(investment roadshow)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2차 사업을 위한 알제리측 전문가와의 토론과 자료 수집, 현지방문을 통한 실사를 주요 목적으로 함.

○ **주요 일정**

날짜	방문 일정			
	그룹 1 - 산업단지	그룹 2 - 전자	그룹 3 - 건설기계	그룹 4 - 섬유
2009.3.13(금)	Paris → Alger	↔	↔	↔
2009.3.14(토)	09:30~17:00 (Alger) 합동회의 (산업투자부)	↔	↔	↔
2009.3.15(일)	09:15~10:30 Alger → Annaba	08:00~08:30 Alger → Setif	09:00~14:00 (Alger) 건설기계 기업 COSIDER 방문 15:00~17:00 건설기계 기업 SOMABE SPA 방문	09:30~11:00 (Alger) 섬유기업 Filiale 방문 13:00~16:00 티지우즈지역 섬유 컴플렉스 방문
	15:00~18:00 (Annaba) Annaba 주 청사에서 회의	11:00~13:30 (Bordj)(비행기 연발 늦어짐) Bordj Bouraserdj의 전자기업, Condor 방문		
		15:00~17:00 전자기업 Sentrax 방문		
2009.3.16(월)	09:00~12:00 (Annaba) 아나바 대학 방문	10:00~12:30 (Bordj) 전자기업 Christor 방문	09:10~10:00 Alger → Constantine	10:00~16:00 섬유부문 국영 지주 회사 방문
	12:00~14:00 (Annaba) 아나바 직업훈련소 방문	16:30~18:00 Bordj → Setif	10:30 ~ 16:30 (Constantine) ENMTP 방문	
	15:00~18:00 아나바 주청사에서 2차 회의	20:15~20:45 Setif → Alger	15:00~18:00 Constantine → Annaba	
2009.3.17(화)	09:00~10:30 (Annaba) 산업단지 후보지 방문	전자산업 관련 협회 방문	산업단지팀에 합류	10:00~13:00 베자이아 지역 봉제

				의류업체 ECOTAL 방문
	11:00~13:00 투자청 아나바 지청 방 문			13:30~14:00 베자이야 지역 봉제 의류업체 ALCOST 방문
	07:50~08:50 Alger → Oran	↔	↔	↔
2009.3.18(수)	10:00~12:00 (Oran) 오랑 주청사 방문	10:00~12:30 (Oran) ENIE 방문	산업단지팀에 합류	산업단지팀에 합류
	14:00~16:00 (Oran) 오랑 항구 방문	14:00~16:00 Alfatron 방문		
2009.3.19(목)	휴무일	↔	↔	↔
2009.3.20(금)	휴무일	↔	↔	↔
	09:00~12:00 (Oran) 오랑 직업능력 개발원 방문	10:00~15:00 (Oran) 국영 전자기업 SITEL 방문	산업단지팀에 합류	산업단지팀에 합류
2009.3.21(토)	13:00~15:00 오랑대학 방문	↔	↔	↔
2009.3.22(일)	09:30~17:00 Wrap-up 미팅 (산업투 자부)	↔	↔	↔
2009.3.23(월)	Alger → Paris	↔	↔	↔

II. 세부 일정

1.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작성 및 산업 IR을 위한 1차 워크숍

- 일시 : 2009. 3. 14(토) 09:00~14:00
- 참석 : 방문자측 - 알제리 방문단 15명 전원
알제리측 - 산업투자부 장관 및 관계자 약 15명
- 회의 주요 내용

- 한국측: 2차사업의 주요 목적, 수행계획 및 일정, 양측 전문가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

- 준비 자료 발표 및 관련 자료 요청

(Proceedings for The First Workshop of the Second Consultation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Plan of Algeria)

- 알제리 산업투자부 장관의 2차사업에 대한 당부:

- 워크숍 진행 도중에 Temmar 장관이 참석, 워크숍 참석자들 및 한국측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와 함께 국내시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작성된 알제리 산업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한-알제리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
- 경쟁력 있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알제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 산업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산업 단지를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시범적으로 가동해 보고 국가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고자 함.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문함. 여러 산업을 다방면에서 동시 진행해야 하므로 전략적으로 중요함.
- 대통령이 관심가지는 건설 프로그램, 석유화학, 주택 부문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봐 주기 바람.
- 산업 단지와 관련하여 지역이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서부와 동부만 볼 것이 아니라 중부지역의 환경도 살펴봐 주기 바람. 행정적, 인구 밀도 등을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하길 바람.
- 산업단지 입주 산업에 대해서는 다기능 산업을 생각했었음. 국토종합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전략이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지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들어보길 바람. 최종적으로 어떤 산업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방정부와 KIET 보고서 참조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음.

2. 산업단지 후보지 실사, 기관 및 기업체 방문

- 3월 15일~21일(19, 20일은 휴무일로 제외)에 걸쳐, 한국측 전문가는 4개의 팀으로 나뉘어 관련 지역 실사, 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실행함. 지역 및 기관 방문을 알제리측 담당공무원이 조직했을뿐만 아니라 각각의 팀에 전 일정을 동행함.

1) 산업단지팀

① Annaba 도청 1차 회의

○ 일시 : 2009. 3. 15(일) 15:00~18:00 (당초 오전부터 가질 예정이었으나 항공편 연발로 불가피하게 오후에 개최)

○ 참석 : 방문자측 - 업종팀 제외한 알제리 방문단 전원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및 Annaba 도청 산업 단지 관련 부서 책임자들, 지역내 교육, 수출, 투자 관련 책임자 등 약 15명

○ 회의 주요내용

- 알제리 산업투자부측 측에서 한국 방문단이 Annaba에 오게 된 이유 등 사전 설명.

· 알제리 정부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Annaba 등 2곳에 설치하여 클러스터가 경쟁력을 갖고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임. 시범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 활발히 운영된다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클러스터 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것임.

· 한국측 전문가들과 알제리 산업투자부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면 Annaba 주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임.

- Annaba 측에서 예정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어떤 산업단지로 육성할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Annaba 산업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하며, 관련 기업의 생산 활동, 수출, 판매 실적 등에 대해서도 차원에서 관련 통계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 Annaba 주 광공업국장 발표 내용

- 산업 개관 및 주요 산업에 대한 준비된 자료 낭독
- 화학, 플라스틱, 식품, 의료용품, 자동차용 유리 부품 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음.
- 기업들의 현대화와 구조조정 작업 진행 중. 구조조정 결과 규모 작은 자회사 생성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들도 점차 커지고 있음. 자회사들은 외국기업과 협력 사업도 전개하고 있음.
- Annaba 도는 개방되면서 투자 입지 여건 개선되고 있음. 항구 등 수송망과 에너지 공급망 등 하부구조 잘 갖추어져 있음.
- 교육 발달로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고 있음. 인력 공급을 위한 7개 단과대학과 직업 훈련학교 등이 있으며 4만명의 대학 재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직업 훈련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음.
- 외국인 투자 활동을 위한 행정 지원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용지 지원 등 투자 진흥을 위한 창구가 잘 갖추어져 있음. 천연적 및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시스템도 선진화 되어 있음.

- 한국측 질문 요지 및 요청 자료

- 금융 시스템, 물류 시설과 처리 능력 정도는?
- 산업단지 조성 후 기업들의 수출 활동 확대를 위한 수출 촉진 노력 계획은?
- 산업단지의 업종별 원단위 적용 여부?
- 추천하는 시범단지는?
- Annaba 도 관계자들이 제공하겠다는 자료들 중 좀 더 구체화

된 자료

- 중소기업 활동에 관한 정보 요청
-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
- 산업단지 예정지역을 포함한 기업 위치, 하부구조 표기된 보다 상세한 지도 제공 요망

② 아나바대학(Universite Badji Mokhtar - Annaba) 방문

- 일시 : 2009. 3. 16(월) 09:00~12: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자, 건설기계, 섬유팀을 제외한 알제리 방문단 전원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5명, 대학측 관계자 약 20명

○ 회의 주요내용

- 한국측 방문 요지 설명
 -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설정시 어떤 산업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인근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 인력 양성 정책 등 가망성 있는 산업 발굴을 위한 인재 찾고자 함.
 - 대학 연구소들이 역내 기업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분야 기업들과 연구 프로그램 진행하는지 등에 관한 설명 요청
 - 대학 졸업후 역내 어떤 분야 기업들에 진출하는지 다소 상세한 정보 요청
- 대학측 대학 현황 및 각종 연구소들의 활동 소개 및 관련 자료 제공
- 대학 소개 후 한국 측 질문 요지
 - 대학 인재 양성 장기 계획
 - 대학의 창업 지원 제도, 인큐베이터 존재 여부, 산업과 연계된 연구소 연구 활동과 저작권 문제
 - 졸업후 학생들의 취업 관리 여부

③ Annaba 직업 훈련소 방문

- 일시 : 2009. 3. 16(월) 12:00~14: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자, 건설기계, 섬유팀 제외한 알제리 방문단 전원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5명, Annaba 도청 직업 훈련 담당자 등
- 시설 관람 후 이용 현황 등에 대해 직업 훈련소장의 설명

④ Annaba 도청 2차 회의

- 일시 : 2009. 3. 16(월) 15:00~18: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자, 건설기계, 섬유팀 제외한 알제리 방문단 전원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및 Annaba 주 산업 단지 관련 부서 책임자들 약 10명
- 회의 주요내용

- 수자원 관련 주 책임자의 수자원 분야 현황 설명
 - 용수 종합 계획 있으며, 시설 확장 계획 있음. 확장 조금 추가하면 산업단지 건설해도 용수 공급 문제 없음.
 - 수자원 공급 관련 재원 문제는 업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수자원 네트워크 1차 공급책임자는 정부
- 중소기업 관련 주 책임자 현황 설명
 - 2009년 1월 현재 약 8,353개 중소기업(1~25명 고용한 기업), 고용인력은 약 4만 7,400명. 주요 고용분야는 건설, 상업, 농수산, 교육 부문 등
 - 신용 융자 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부 지원책 여러 가지 있음.
 - 중소기업 현대화 프로그램 진행 중(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 현

대화 프로그램으로 150여개 기업 혜택 받음)

- 창업 인큐베이터 많음. 주식회사 형태의 인큐베이터 설립. 교육 기관에도 창업 인큐베이터 시스템 설립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파이낸싱은 어려운 상황. 전담 은행 설립 움직임 있었으나 실제로 아직 존재하지는 않음.
- 중소기업 투자 지원 관련한 ANDI 역할은 부족한 측면 많음.

⑤ 산업단지 후보지 방문

- 일시 : 2009. 3. 17(화) 09:00~10:30
- 참석 : 방문자측 - 단지팀 핵심인력,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Annaba 광공업 국장,
후보지 행정지역 관계자

○ 회의 주요내용

- 부지 관련 주 책임자 설명
 - 용지는 충분함. 인프라 및 조성 부족. 이들 분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
 - 공단 20~30%는 사용 중. 나머지는 빈 땅
- 공단 설립 관련 기타 필요 자료 제공에 관해 한국측과 토의
- 기타 Annaba 측 제안한 공단 부지들에 대한 상호 논의

⑥ ANDI Annaba (투자청 Annaba 지청) 방문 회의

- 일시 : 2009. 3. 17(화) 09:00~13:00
- 참석 : 방문자측 - 업종팀, 단지팀 제외한 투자, 수출 담당자 및 교육팀 (단지팀은 공단 후보지 시찰후 합석)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Annaba 투자청, 상

공회의소, ANIREF 관계자 등 10명

○ 회의 주요내용

- ANDI Annaba 책임자:

- 투자청 업무 흐름 소개. 투자청 역할, 투자 확대 가능성
- Annaba 투자 입지의 경제 및 관광 자원 우수성 등 소개
- Annaba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
- Annaba 테크노파크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 한국측 질문 요지

- Annaba 차원에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유치 활동 경험 여부 (한 차례 진행 경험 있음)
- Annaba 차원에서 진행하는 수출 촉진책과 관련 자료 제공 요청

- Annaba 상공회의소 책임자 및 부책임자:

- 상공회의소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한 소개
- 역내 기업 활동, 잠재력, 수출 관련 사항 간략히 설명
-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을 EU와 협력하여 진행
- 현대화 프로그램 지원받아 기업 현대화 사업 활발히 전개
- 역내 주요 수출품 (코르크, 농수산물) 소개

- 한국측:

- 수출 촉진 활동과 바이어 연결,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여부 등에 대한 질문
- 관련 자료 요청

- Annaba ANIREF 책임자:

- 토지 및 자산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ANIREF 소개
- Annaba 지역 ANIREF의 자산 규모 등 설명

⑦ Oran 도청 방문

- 방문일자: 2009. 3. 18(수) 10:00~12: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자팀 제외한 전원(건설기계 및 섬유팀 합류)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Oran 도청, 투자청, 상공회의소, 직업훈련원 관계자 등 20 여명
- 회의 주요내용 :

- 한국측: 알제리 2차 자문사업의 취지, Oran 지역에 시범 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 등을 설명하고 산업단지 후보지 소개 및 Oran 지역 산업단지에 입지할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

- 알제리측: Oran 경제 개관 설명
 - Oran은 알제리 서부 지역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Oran 개발 계획은 서부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함.
 - Oran 지역 주요 산업은 제강, 석유화학 등
 - 중소기업 주요 업종은 농수산, 식품, 섬유 등이나 섬유 산업은 경제위기로 조금 침체된 상태
 - 중소기업의 80% 정도는 경쟁력 없으나 20% 정도는 경쟁력이 있어 도청과 대학 차원에서 발전시킬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음.

- Oran 광공업 분야 책임자 설명
- Oran 인력 공급 분야 책임자 설명
- Oran 항구 분야 책임자 설명

⑧ Oran 항 방문

- 방문일자: 2009. 3. 18(수) 14:00~16: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자팀 제외한 전원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Oran 항만청장 등 관계자 10 여명

- 회의 주요내용 : 항만 시찰 후 회의
 - 항만 청장 - Oran 항 확장 및 장기 개발 계획 등 PPT 자료 소개(현재 항만 7ha, 2020년 53ha로 확대)

⑨ Oran 직업 능력 개발원 방문

- 방문일자: 2009. 3. 21(토) 09:00~12: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자팀 제외한 전원
 -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Oran 직업능력개발원장, Oran 지역 각종 직업 학교장 등 관계자 15 여명
- 회의 주요내용 :
 - Oran 직업능력개발원장의 현황 설명
 - Oran 지역 분야별 직업 학교장들의 운영 실태 설명

Oran 대학 방문

- 방문일자: 2009. 3. 21(토) 13:00~15: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자팀 제외한 전원
 -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관계자, Oran 대학 부총장, 각 대학 학장, 연구소장 등 학교 관계자 20여명
- 회의 주요내용 :
 - 대학 및 각종 연구소 현황 소개
 - 대학의 기업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한 토의
 -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방향
 - 산학협력에 관한 양국 경험 토의

2) 전자산업팀 기업체 방문

«Condor Electronics»

- 일시 : 2009. 3. 15(일) 09:30~12:00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측 주대영, 조창현, 김계환
산업투자부 Mr. Rahla, Mr. Oumellal
Condor 측- Mr. A. Benhama야 / Condor 사장 등 3명

- 주요내용 :

- TV(CRT, LCD), 셋톱박스,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생산기업
- TV 생산분야에서 한국기업과 합작 경험이 있음
- ENIE에 비해 투자 및 생산성에서 우위에 있다고 지적
-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음
-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 자격증제도 개선, 연구개발투자 등 지적
- 국영기업 ENIE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 견해 피력

<Sentrax>

- 일시 : 2009. 3. 15(일) 15:00~17:00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측 주대영, 조창현, 김계환
산업투자부 Mr. Rahla, Mr. Oumellal
Sentrax 측- Mr. ALLAB Said / 지배인 등 4명

- 주요내용 :

- 2개 회사로 이루어진 가족기업으로 향후 건설부문을 추가할 예정
- 세탁기, 에어컨, 플라스틱 세탁기 등 백색가전 제품 생산
- 고용 인원은 500여명에 이룸.
- 한국의 삼성과 합작 사업을 추진하다 2007년 이후 관계가 중단됨 - 현
재는 중국 기업인 TCL과 협력관계 유지

<<Christor>>

- 일시 : 2009. 3. 16(월) 10:00~12:30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측 주대영, 조창현, 김계환
산업투자부 Mr. Rahla, Mr. Oumellal
Sentrax 측- Mr. ALLAB Said / 구매 및 판매 지배인 등 3명

- 주요내용 :

- 고용 근로자 420여명의 기업으로 1990년대 말 설립된 기업
- 필립스와 합작으로 단순조립에서 시작하여 점차 생산기능을 확대함.
- 2000년대 이후 단순조립에서 탈피하려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필립스의 비협조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한국 기업과 접촉한 바가 있으나 가격면에서의 부담으로 무산
- 3년 전부터 LCD 생산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부분은 자체생산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
- 향후 2~3년 내에 LCD TV가 알제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알제리 TV 시장의 격변을 예상함.

<<ENIE>>

- 일시 : 2009. 3. 18(수) 10:00~12:00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측 주대영, 조창현, 김계환
산업투자부 Mr. Rahla, Mr. Oumellal
ENIE 측- ENIE 사장 등 5명

- 주요내용 :

- 시장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함.
- LCD TV 분야는 10년 정도 뒤쳐져있다고 판단
- 현재 시장점유율을 34%로 보고 있으며 기업내부팀에 의한 기업 재생을 추

진할 생각

- 작년 14만대, 금년에는 17만대 생산 목표
- 판매구성은 공공기관이 21%, 공기업이 20%, 교육기관 5%, 개인 29%, 민간 기업이 5%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45%이상을 점함.
- 2008년도 이후 매출액이 급성장한 이유로 브랜드네임의 인지도 상승, 시장 수요 증가를 들 수 있음.
- 현재의 기업 생산활동은 PC 생산, 서비스, 쇼룸운영(3곳), 부품도매로 구성 됨.
- 기술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건물, 환경 등도 업그레이드하고자 함.
- 현 인력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고려하고 있음.
- ENIE의 현상황은 투자부진에 기인함.
- 자문회사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검토하고 있음.
- 민간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질문임.

<Alfatron>

- 일시 : 2009. 3. 18(수) 14:00~16:00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측 주대영, 조창현, 김계환
산업투자부 Mr. Rahla, Mr. Oumellal
Alfatron 측- Mr. K. BIBITRIKI 사장 등 3명
- 주요내용 :
- ENIE의 자회사로 PC 생산기업임.
- 연간생산량은 10만대 수준이나 30만대를 목표로 함.
- 고용인원은 107명으로 정규직이 71명, 임시직이 36명임.
- CEO의 경영 자율권에 대한 서류상의 제약은 없고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 제약이 적용됨.
- 가격책정, 고용에 대한 제약은 과거의 이야기임.

- 보통 4~5%의 수익률을 올리나 2008년의 경우 8%의 수익률 달성

<Sitel>

- 일시 : 2009. 3. 21(토) 10:00~15:00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측 주대영, 조창현, 김계환
산업투자부 Mr. Rahla, Mr. Oumellal
Sitel 측- Mr. A. BAGHKI 사장 등 4명

- 주요내용 :

- 1988년 Ericsson과 협력관계 시작하여 에릭슨의 지분이 35%이고 나머지는 국가부문이 소유함.
- 생산품은 GSM, GPS/GSM, 계량기 등임.
- 그러나 생산 보다는 서비스쪽으로 방향전환 모색
- 현재 계량기 Kit를 중국에서 구매하여 조립, 판매하고 있음.
- 계량기 수요를 향후 3년간 500만대로 예상(주택: 300만대, 중소기업:200만대)
- 사용전계량기(연간 20만대 수요)와 다가정용계량기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음.
- GPS는 올해 2월에 허가를 받음.
- 태양전지 사업에 파트너와 함께 진출할 의향이 있음.
- Sitel의 잠재력은 100여명의 엔지니어에 있음.

3) 건설기계산업팀 기업체 방문

① 건설업체 및 공사 현장 방문

<COSIDER Group>

- 일시 : 2009. 3. 15(일) 09:00~14:00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정만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운영석
부장, 산업투자부 Dr.Kechroud, 통역
COSIDER측- Mr. Ali Bourahla / COSIDER Group 부사장(CFO)
Mr. Hamid Khemliche / COSIDER Construction 사장
- 주요내용 :
 - COSIDER Group 현황 : 1990년 설립된 국영업체로 상위 Rank. 총 10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개사가 건설업체. 종업원 2만명, 2008년 Turnover 8억US\$
 - COSIDER Construction 현황 : 그룹중 1위업체로 자본금 1억 4천만 US\$(천만 디나르). 주거용건물 건축이 주종이면 년 5~6천호 공급. 종업원 7,000명. 건설기계 보유대수는 도저 20대, 굴삭기 40대, 트럭 70대 등 총 250대(파이프레이어 포함) 장비팀의 강화를 위해 유럽(포르투갈 Teixeira Duarte)사와 합작사 설립
 - 동사 공사현장 방문 : 국립 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설립현장으로 7만톤의 콘크리트 및 6천톤의 철근 수요. 공사규모는 5천만 유로(Turnkey base 공사)로 30개월 공기. 건설기계 투입비용은 COSIDER사의 연간 건설기계투입비용 3~4천만 US\$의 1/10 수준인 년 200~300만 US\$. CPT 소요 2대
 - 수요업체(COSIDER Construction) 방문을 통한 시장 특징 분석 : 수요업체인 건설업체가 직접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현재의 건설시황 호황측면에서는 적절. 렌탈산업이 거의 없음. 향후 건설시공사가 2~3개사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건설기계의 수요처가 동사들로 집중될 전망으로 직접적인 접촉 및 판매활동이 바람직

② 건설기계업체 방문

<SOMABE Spa>

- 일시 : 2009. 3. 15(일) 15:00~17:00

- 지역 : Alger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정만태, 건설기계산업협회 운영석 부장,
산업투자부 Dr.Kechroud, 통역
SOMABE측 Mr. Neggazi Brahim / SOMABE 사장
Mr. Boudehane Salah / ENMTP 이사
- 주요내용 :
 - SOMABE Spa 현황 : 국영이면서 알제리 유일의 종합건설기계 전문건설기계생산업체인 ENMTP의 자회사로 수도인 Alger에 위치함.
 - 2007년 7월부터 100% ENMTP에 속함
 - 주요 생산품목은 Dumper, Concrete 믹서, Layer 등
 - 총 종업원 240명(생산직 140, 판매직 22, 자금 및 재무 6, 행정관리 49, 보안 23)
 - 자본금은 1,344,000 KDA
 - 이 회사는 총면적 76,620 m² 중의 32,894 m² 면적 위에 설립되었음.
 - 회사연혁 : 전 UMBH(Unité Matériel à Béton d'El Harrach: El Harrach 콘크리트 재료 연합)
 - 연 6,900 기계장비 생산능력을 갖추.
Ø 2500 덤퍼, Ø 4000 콘크리트 믹서, Ø 400 Layers
- SOMABE Spa 견학 소감 : 콘크리트 관련 장비 생산업체로 낙후된 생산라인 및 비효율적인 영업관리 등 개선요소가 많았음

《ENMTP(Entreprise Nationale des Matériels de Travaux Publics)》

- 일시 : 2009. 3. 16(월) 10:30~16:30
- 지역 : Constantine
- 참석 : 방문자측 - KIET 정만태, 건설기계산업협회 운영석 부장,
산업투자부 Dr.Kechroud, 통역
ENMTP측 Mr. EL Habib Benmadjate / ENMTP부사장
Mr. Beziane Liazid / 부품개발이사
Mr. Kecita Med Said / 관리이사

- 주요내용 :

* ENMTP 현황

- 설립 년도 : 1983년 1월
- 공장 설립 : 독일 Liebherr사 Turnkey base
- 기술 이전 : 1986년 완료 (공장유지보수/기술 수준이 1986년 이후 답보)
- 자본금 : 1억 2,300만 US · Turnover(2007) : 6,800만 US
- 직원수 : 2,300명
- 국영이면서 알제리 유일의 종합건설기계 전문건설기계생산업체

- ENMTP 견학 소감 :

- 방대한 부지에 4개 주요 생산공장 배치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 및 영업의 연계 부족
- 외주(vendor)를 배제한 전 공정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 떨어짐
- 제품의 출하관리를 위하여 타 지역 공장 생산제품의 본사 (Constantine) 집하 및 공급하는 불합리한 관리 형태를 보임
- 판매 시 생산자 보증의 외상판매형태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음
- Local 시장에만 의존

4) 섬유 · 의류업체 방문

① filiale (알제)

□ 참석자 및 일시

- 참석자: 이임자, 김부홍(섬산연), 자마할(알제리 산업투자부 섬유담당), **filiale** 임직원 6명
- 일시 : 2009. 3. 15(일), 9:30~11:00

□ 방문내용

- 회사개괄
 - 1998년 설립된 아크릴 담요 생산업체
 - 알제리 담요 생산업체 국영기업 4개 중 하나(민간업체는 2개)
 - 3개부서로 구성: 생산운영, 영업, 인사·직원관리
- 고용현황
 - 직원 120명(여성인력 18명 정도)
 - 여성인력의 경우 법적으로 2교대만 가능(5~20시), 3교대는 불가능
 - 임금수준은 220유로/월,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50~60% 추가 지급
- 생산현황
 - 최근 수요 위축으로 주간근무만 수행
 - 단, 제사공정은 수요 증가로 2교대 중
 - 생산설비는 자카드기계 1970년 설비 2개라인, 1992년 설비 2개 라인 등 총 4개 라인 가동, 그 외 아크릴 제사설비, 염색설비 등 보유

- 총생산능력은 60만장/연이며, 현재 생산량은 135천장으로 가동률 25% 정도
 - 원료 아크릴섬유는 100% 수입에 의존
- 판매현황
 - 정부조달 60%, 민간부문 40% 차지
 - 시중에서 수입제품이 알제리산보다 50% 저렴
- 문제점
 - 위생규격을 충족하는 등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로 시정점유율 낮음
 - 정부무문에 대해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설비의 노후화 및 인력 고령화
 - 수출전무

② 섬유컴플렉스 (티지우즈)

□ 참석자 및 일시

- 참석자: 이임자, 김부홍(섬산연), 자마할(알제리 산업투자부 섬유담당), 콤플렉스 임직원 9명
- 일시 : 2009. 3. 15(일), 13:00~16:00

□ 방문내용

- 회사개괄
 - 1967년 설립, 1979년 및 1986년에 증축한 32ha 규모의 복합생산지역
 - 2,000kw의 자가 전기공급 설비 보유
 - 알제리수도 알제로부터 120km 소재

- 철도망, 도로망 등 물류조건 좋음.
- 생산현황
 - 제사부터 가공, 직조까지 일괄 생산설비 보유
 - 면사 1만톤 저장 가능, 방적설비 37,500추, 직조기 96대, 염색기 8대 보유
 - 현재 가동률은 10% 미만
- 판매현황
 - 원단판로 : 국영 봉제회사 80%, 민간 내수 20% 차지
- 문제점
 - 최근 10년간 투자 전무
 - 가동률 저하
 - 원자재 수급 문제 : 인도산 원면 공급 애로 직면

③ 지주회사 SGP (알제)

□ 참석자 및 일시

- 참석자: 이임자, 김부홍(섬산연), 자마할(알제리 산업투자부 섬유담당), 산업투자부 국장, SGP 임직원 3명, C&H Fashion 및 Texmaco 사장 등
- 일시 : 2009. 3. 16(월), 10:00~16:00

□ 방문내용

- 회사개괄
 - SGP는 73개의 공기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

- 직물(25개), 의류(15개), 가죽·피혁(11개), 목재(22개)
- Texmaco : 25개의 직물업체 관리
- C&H Fashion : 15개의 의류업체 관리

□ C&H Fashion

- 의류 자회사 15개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생산품목은 평상복, 작업복, 기능복, 텐트, 덮개, 모자류 등으로 다양
- 직원수 3,000명, 매출액 3,000만 유로
- 직물은 100% Texmaco에서 조달 : 면, 모, 폴리에스테르 등
 - 알제리가 미생산하는 직물 수입으로 조달 : 방화서유, 멤브레인 등 고기능성 섬유직물(technical fabric)
 - 수요 증가시 수입으로 조달
- 최근 수출 시작
 - 프랑스 경찰복 : 138,000장 공급
 - NATO : 운동복 156,000장 공급
- 문제점
 - 원료조달 문제: 현재 원단은 범용소재 중심 생산으로, 고기능성 소재는 전량 수입에 의존, 따라서 평상복 제조에는 문제가 없으나, 방탄의류 등 고기능성 의류 수요 증가에 대응 능력 부족
 - 2009년 연말까지 대규모 투자 계획 중
 - 수입산 대비 경쟁력 열위로 수입 증가, 따라서 인프라가 좋은 기업은 고기능성 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 계획 중
- 알제리 섬유산업의 잠재력은 향후 발전가능성 높은 내수시장과 낮은 인건비를 들 수 있음.

- 의류 임가공비용은 주변국 튀니지 및 모로코의 경우 장당 0.80유로 이나 알제리는 0.65유로임.

□ Texmaco

- 직물분야 25개 자회사를 관리하며, 아래 7개의 서브 그룹을 두고 있으며, 고용규모는 9,000명
 - 모제품: 알제 동부에 3개 기업 소재, 현재 1개 기업만 가동 중
 - 담요 : 4개 기업
 - 면제품: 6개 기업, 최근 대규모 투자, 베자이아 중심
 - 제사 : 4개 기업, 폴리에스터, 면 등
 - 스포츠웨어: 진, 가구용 원단 등
 - 실크: 인조실크 생산, 3개기업, 원자재 100% 수입
 - 비직조: 3개기업, 카펫, 포장재, 덮개류 등 생산
- 2008년 기준 매출액 1억 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6~8% 성장, 2009년은 전년대비 13~14% 성장 전망
 - 매출 중 의류 30%, 정부기관 50%, 민간 20% 차지
- 방직중 Texmaco가 알제리 전체 capa의 90% 차지하나 가동률은 30% 정도
- 알제리 원단 시장규모는 1200~1500디나르 수준이며 알제리의 국산화율은 10% 미만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알제리는 보호경제에서 시장 개방에 대한 준비없이 자유경제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 10년간 내정 등의 이유로 산업 기반이 크게 약화

④ 봉제의류업체 ECOTAL (베자이아)

□ 참석자 및 일시

- 참석자: 이임자, 김부홍(섬산연), 자마할(알제리 산업투자부 섬유담당), ECOTAL 임직원 10명
- 일시 : 2009. 3. 17(화), 10:00~13:00

□ 방문내용

- 1958년 설립된 ECOTAL은 1975년, 1985년, 2008년 각각 설비투자 단행
- 염색, 니트,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목은 속옷, 츄리닝 등임.
- 현재 가동률은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은 정직원 기준 193명임.
 - 조업량에 따라 100~130명의 계약직 추가 채용 가능
 - 계약직 중 여자인력이 86명임.
- 원사는 주로 인도에서 수입하며, 100% 면사의 속옷용 니트를 재직하며 생산량은 120kg/1일임.
- ECOTAL의 장점은 향후 높은 경제 발전가능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과 좋은 입지를 들 수 있음.
 - 항구까지 200m, 공항까지 1km에 입지
- 반면 설비 노후화, 유동기방의 취약, 마케팅력 부족, 원단 공급능력 부족 등 취약점 상존

- 한국과의 섬유산업 직업훈련 파트너십 관계 요구
- 유럽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출입 관세 특혜가 있으며, 2010년 완전 무관세화될 예정
 - 원사,직물의 수입관세는 15%, 의류 등 완제품의 수입관세는 30%로 고관세

⑤ 봉제의류업체 ALCOST (베자이아)

□ 참석자 및 일시

- 참석자: 이임자, 김부홍(섬산연), 자마할(알제리 산업투자부 섬유담당), ALCOST 임직원 7명
- 일시 : 2009. 3. 17(화), 13:30~14:00

□ 방문내용

- 100% 울제품 생산하며, 하청위주의 생산으로 50~60% 유럽 수출
- 주력 생산품은 남성양복, 셔츠, 운동복, 경찰복 등
- 임금수준은 180유로/월 수준이며, 사회복지세가 총임금의 35% 수준임.
- 베자이아에 섬유인력 교육훈련기관이 있어 봉제 자격증을 받은 여성인력의 경우 18개월 견습 후 채용
 - 필요시 언제나 활용가능한 유희인력대기시스템이 있음.
- 현재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설비 자동화율 7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5% 수준임.

- 재단 100% 자동화, CAD/CAM,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진할 계획

⑥ 알제리 섬유산업 평가

- 알제리의 섬유산업을 경쟁력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해 본 결과, 대체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알제리 섬유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비 노후화, 인력고령화, 그리고 가격, 수급에 의한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임.

<경쟁력 평가>

	상	중	하
▶ 설비			
▶ 가격			
▶ 노동력			
▶ 노동비용(임금, 여성인력 활용도, 사회복지세...)			
▶ 기술(R&D..)			
▶ 품질			
▶ 천연자원(원유, 천연가스)			
▶ 관련산업			
▶ 산업인프라			

- 알제리 섬유산업은 공기업에서 비롯되는 생산, 고용, 이익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발견됨.

<효율성 평가>

	상	중	하
▶ 시장(가격, 수요-공급, 정부수요 중심...)			
▶ 생산			
▶ 고용 유연성			

- 알제리의 주요 투자유치 대상산업 선정 : 선택과 집중
 - 화학섬유
 - 의류

- 알제리측에 요구자료
 - 일반경제 현황
 - 알제리 섬유/의류산업 현황
 - 투자 인센티브 현황 : 세제혜택, 고용조건, 자금조달, 인프라, 부지 등
 - 알제리 투자의 장점 및 기대효과

III. 알제리 산업투자부 Wrap-up 미팅

- 방문일자: 2009. 3. 22(일) 09:00~17:00
- 참석 : 방문자측 - 전원
알제리측 - 알제리 산업투자부 장관 및 관계자 20 여명

- 회의 주요내용 : Wrap-up 미팅용 준비 자료 발표 및 토의
 - 알제리측의 한국 방문단 방문 활동에 대한 요약 설명
 - 공단 후보지와 관련 여건 조사를 위한 한국측 방문 목적에 따라 최대한 많은 곳을 방문하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Annaba와 Oran 두 지역의 공단 후보지와 대학, 직업훈련소, 항구, 기타 인프라 시설 등 많은 곳들을 방문하였음.
 - Annaba에서는 2곳의 유용한 공단 후보지를 소개 받음. 먼저, Annaba 남부 동서고속도로 인근 지역에 위치한 공단 후보지는

지방 정부에서 높은 관심 가지고 있으며,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도심화 속도도 늦출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전혀 개발되지 않은 처너지였음.

- 공단 건설시 투입될 인력 여건 조사를 위해 직업 훈련소와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연구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소개를 받음.
- Oran 지역에서는 공단 건설시 유용한 항구를 방문하였고, 2곳의 공단 후보지를 소개 받았음.

- 한국측, Wrap-up 미팅용 준비 자료 발표 및 토의

- 방문 목적에 따라 여러 곳을 방문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음. 특히 알제리 산업투자부 공무원 및 방문 기관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전자산업 분야는 상호 방문에 따라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 긴밀한 팀이 이루어졌고 많은 정보교환이 있었음. 전자산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채널 구축은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기대함.
- Wrap-up 미팅용 자료 발표. 산업단지 후보지, 기관 및 기업체 방문 후 한국측 전문가의 평가와 알제리측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고 4월 한국에서의 워크숍 준비를 위한 알제리측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

- 산업단지 선정 관련 토론

- 한국측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한 Oran 지역 공단 후보지에 대해 알제리측에서는 해당 지역이 농지이며, 산업투자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행정적, 법률적 문제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 또한 알제리 측은 경제 현황 및 인프라 현황 등 현재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공단 후보지를 선정하지 말고 알제리 경제의 향후 발전 문제 및 장기 개발 계획 등을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공단 건설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

- 알제리 산업투자부 장관 발언 주요 내용

- 워크숍 도중 산업투자부 장관이 참석하여 전자산업 공기업 구조조정과 알제리 섬유산업 전망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발표를 경청하고 토론에 참석함.

- 전자산업 관련

- 한국 전문가는 민간 및 국유 전자기업 방문 후 1차적 평가 의견을 제시함. 우선 민간기업은 보다 경쟁의 압력과 위기 의식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진은 기술과 신제품에 관한 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신규사업 진출 및 퇴출에서 보다 신속함을 지적, 민간기업의 기술수준이 우위에 있으며 정부 정책보다는 시장의 동향에 보다 민간하게 반응을 지적함. 또한 민간기업은 소비자의 선호 등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 반면 공기업은 의사결정이 매우 느리며, 기업의 장기전략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R&D 센터가 부재하며, 경쟁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진단에 기초하여 전자부문 신규 공기업 SED-IE의 제품전략을 제시함. 기본 방향은 TV, PC 등 민간기업에 적합한 사업 부문은 정상화과정을 가친 후 민영화하고 민간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신규사업이나 고위험 사업의 경우 공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따라서 신규 공기업인 SED-IE는 태양전지, LED 조명, CCTV,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등 신규사업이나 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E-Algeria 2013'과 같은 범 국가적인 프로그램의 구성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공기업의 성격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알제리 전자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는 방안을 제시함.

- 한편 전문가들이 방문한 민간기업이 알제리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발표함. 여기서 민간기업은 R&D 투자, 인력양성 지원, 인력의 해외연수 지원, 자격증 제도 정비, 알제리 출신 해외 엔지니어 수입, 민간기업 및 공공부문의 어려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구함.

- 마지막으로 기업운영 및 내부조직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함. 특히 내부구조를 사업부제(multidivisional structure)로 재편하여 기업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제안.

- 장관은 현재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이나 운영 지침도 주지 않고 있어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국영기업의 생존 문제는 기업 자체의 문제임을 지적. 다만 고용문제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가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정도임.

- 그러나 정부는 산업 개혁 차원에서 국영기업 문제 등을 일부 다루고 있음. 전자 등 일부 산업에 대해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고, 국제적 경쟁 하에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착수한 상태임.

- 인력 개발을 위한 각종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에 대해 알제리 산업투자부 장관도 많은 관심을 기울임. 알제리

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조직 자체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개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

- 섬유산업팀

· 중국의 대대적인 진입으로 알제리 섬유산업도 무너지고 있음. 설비노후, 인력 고령화, 근로 시간의 나태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것이 사실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차원의 의지와 준비는 충분하나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되어 문제임. 국영기업의 생산성 문제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임. 섬유 산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절감, 설비 갱신, 화학 섬유 특화 등 한국측의 여러 가지 제안들은 긍정적이거나 한국 섬유 산업이 알제리에 들어올 때 생산 기술은 물론 경영 관리 기술도 함께 들어와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

-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 Annaba 및 Oran 지역의 투자 여건 및 환경은 양호
- 투자 전담 기관 부재는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

- 수출 진흥 관련

- 수출 진흥 정책 및 노력 부재
- 지역 차원의 수출 진흥 기관 부재와 수출 진흥 노력 부족 ☹